



채만식의 '근대' 인식과 '친일'의 문제

저자 임명진
(Authors)

출처 [국어국문학 129](#), 2001.12, 485-510 (26 pages)
(Source)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29](#), 2001.12, 485-510 (26 pages)

발행처 [국어국문학회](#)
(Publisher)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0074567>

APA Style 임명진 (2001). 채만식의 '근대' 인식과 '친일'의 문제. 국어국문학, 129, 485-510.

이용정보 고려대학교
(Accessed) 163.152.133.25
 2016/06/13 16:5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蔡萬植의 ‘近代’ 인식과 ‘친일’의 문제

임 명 진*

1. 왜 다시 채만식(채만식 문학)인가?
2. 식민지적 ‘근대’의 기형성과 이에 대한 인식
3. 기형적 ‘근대’에 대한 채만식의 문학적 대응
4. 맺음말

1. 왜 다시 채만식(채만식 문학)인가?

채만식(1902~1950) 또는 채만식 문학에 관한 연구는 이미 500여편을 상회하였고¹⁾ 그 성과도 다양하게 드러나 있다. 게다가 그의 작고 이래 반 세기를 거쳐오는 동안 여러 기회를 통하여 그에 관한 특집이 마련되기도 하고, 또 10년 전에 그의 전집도 발간되어 그에 관한 연구는 다각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런데도 아직도/다시 채만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연구사를 간략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²⁾

*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장

- 1) 1997년 윤영옥이 정리한 채만식 연구논저목록은 총 503편에 달한다. 그 이후에 발표된 논구도 수십 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어문화회 편, 『채만식 문학 연구』(한국문화사, 1997)의 282~311쪽에 실린 부록 「연구 논저 목록」 참조.

채만식 또는 채만식 문학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역사학계에서 태동된 이른바 ‘민족주체적 인식론’ 또는 ‘내재적 발전론’³⁾의 등장과 함께 채만식 문학은 풍자를 통한 식민지 현실의 날카로운 관찰과 비판으로 평가받기에 이른다. 이로써 채만식 문학에 대한 ‘긍정론’이 확립된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면 소위 ‘민중·민족문학론’으로 대변되는 진보적 리얼리즘론에 힘입어 다른 각도의 접근이 전개된다. 즉 채만식 문학에 대한 기존의 평가인 비판적 리얼리즘에 냉소적 허무주의의 경향이라는 또다른 평가가 가해진다. 이로써 채만식에 대한 ‘부정적 비판론’이 제기되기에 이른다. 1989년 전집의 간행에 힘입어 1990년대에 이르면 연구 경향이 정밀·다양화되며, 연구 방법도 매우 전문화(기호론, 서사론, 담론 이론, 구술성 이론)되면서 기존의 ‘긍정론’과 ‘부정적 비판론’이 심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⁴⁾

그러나 채만식의 문학사적 자리매김은 아직도 이중적이다. 여기에는 그간 우리 학계가 걸어온 역사적 측면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한 작가에 관한 연구가 그런 당대의 전반적인 연구풍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학계의 외부에서 작용한 그런 역사주의적

2) 채만식 또는 채만식 문학에 관한 연구사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에서 정리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윤영옥, 『채만식 풍자소설의 서사기법 연구』(전북대 박사학위논문, 1999), 1-10쪽; 이현식, 『채만식은 학문적으로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가』(문학과학사상연구회 편, 『채만식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사, 1999), 225-250쪽.

3) 이는, 1960년대 초 이후 한국 역사학계에서 축적되어 1960년대 말에 광범위하게 자리잡은 인문학적 패러다임으로, 간단히 요약하면 식민사관의 극복과 내재적 발전론이라 할 수 있다. 이 무렵 역사학계를 필두로, 그 이전의 식민사관을 밀받침해온 한국사회의 정체성론이 극복되면서, 이를 대체하여 우리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 ‘내재적 발전론’이 자리잡게 되고, 곧 이어 이것이 사상사나 문학사 등의 연구에도 폭넓은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써 인문학 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기에 이른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박찬승의 「분단시대 남한의 한국사학」, 조동걸·한영우·박찬승 편,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하)』(창작과비평사, 1994)를 참조할 수 있음.

4) 이런 연구사의 전개 과정을 자세하게 정리한 논문으로는 이현식의 앞의 논문이 돋보인다. 본 고의 이 부분도 이 논문을 참조하였음.

측면 외에, 우리 학계 내부에 기인한 또 다른 원인은 없겠는가?

채만식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난점 중의 하나는 그의 일제 말의 친일 행적에 관한 평가이다.⁵⁾ 『三代』와 더불어 일제강점기에 씌어진 가장 우수한 작품 중의 하나인 『太平天下』의 작가라는 기존의 평가⁶⁾는 그의 친일 행적을 다루는 작업을 상당히 주저케 한다. 또한 그를 친일 작가로 매도할 경우 한국의 근대소설사가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 하는 우려와 조바심이 또 그런 머뭇거림을 부추긴다. 이런 머뭇거림이 우리 학계 내부의 적잖은 원인(遠因)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머뭇거림이 계속되는 한 예의 이중성은 해소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채만식의 '근대' 인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고는 그런 머뭇거림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채만식의 문학사적 평가는 그의 '근대' 인식에 관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점검하는 데에서 다시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본고는 이런 작업의 일단으로 시도된다. 또한 본 고에서는 친일 문제가 일제강점기의 '근대'와 맞물려 있다는 시각에서 채만식의 경우 '근대'의 문제가 '친일'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아울러 검토하고자 한다.

2. 식민지적 '근대'의 기형성과 이에 대한 인식

한국문학의 민족문화적 전통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근대성의 관한 논의가 필수적이며, 이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친일의 문제를 다시 거론하

5) 채만식의 친일문학에 관한 논구로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다음이 있다. 임종국, 『親日文學論』(평화출판사, 1966); 이경훈, 「'근대'의 초극론-친일문학의 한 시각」, 한국문학회 편, 『다시 읽는 역사문학』(평민사, 1995); 이경훈, 「근대 주체의 좌절과 초극」, 문학과사상연구회 편, 『채만식 문학의 재인식』(소명출판사, 1999); 조창환, 『해방전후 채만식 소설 연구』(태학사, 1997); 최현식, 「문학가의 이상과 생활인의 비애」, 한국문학회 편, 『다시 읽는 역사문학』(평민사, 1995) 등.

6) 김현·김윤식, 『韓國文學史』(민음사, 1973), 189쪽.

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친일의 문제는 어떤 작가의 치부를 드러내어 단죄 하자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민족문화사 수립을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서의 근대성 문제를 정리하는데 초점을 두고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다음의 지적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명백한 친일파라 하더라도 오직 단죄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서는 진정한 의미의 극복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다시 말하면 친일파의 내적 논리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의 중요성이다. 식민지 시대는 물론이고 그 이전과 그 이후,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친일파의 전통이 면면하다면 그것은 단지 그 개인의 품성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그런 성향을 만들어내는 우리 사회 내부의 결함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⁷⁾

친일의 문제가 일제강점기만의 문제가 아닌, 그 이전과 이후에도 연결되어 있는, 즉 한국의 근대사에 관통되어 있는 문제라는 점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근대화 과정이라는 맥락 속에서의 논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애국계몽기와 일제강점기의 ‘근대’의 문제를 소략하게나마 정리하고 이 문제가 당대 지식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를 먼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근대’, ‘근대성’, ‘근대화’ 등의 용어는 이미 다방면에서 사용되어 왔고, 이제는 그 전후 맥락에 따라 제각각 다른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을 만큼 그 함축적 의미가 다양해졌다.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들은 ①종교적

7) 최원식, 「한국문학의 근대성을 다시 생각한다」, 민족문화사연구회 편, 『민족문화와 근대성』(문학파지성사, 1995), 56쪽.

8) ‘근대’, ‘근대성’, ‘근대화’ 등의 용어는 이미 국문학계, 역사학계, 사회학계 등에서 폭넓게 사용되어 왔고, 그 쓰임의 맥락에 따라 그 개념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만, 이제는 대체로 역사학계의 연구 결과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어왔다. 본 고에서는 이런 일반적 관행에 따라 ‘근대성’은 ‘근대의 특징과 성격’의 의미로, ‘근대화’는 ‘근대성의 실현과 성취과정’의 의미로 사용한다.

권위가 부정되는 현세적 인간주의, ②자연의 이치를 무목적한 인과관계로 이해하는 과학적 합리주의 정신, ③봉건적 신분을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인격의 자율성(또는 반봉건의식)을 근간으로 한다.⁹⁾ 다만 이 세 가지 기본 정신 중 어디에 초점을 더 두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내포적 의미가 생성된다고 하겠다.

아무튼 본래의 근대는 위 세 가지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서구에서는 중세 이후 19세기까지 수세기에 걸쳐 전개된 이념운동, 산업운동, 그리고 사회운동의 결과로 형성되어 왔다. 즉 중세 이후 르네상스 운동을 거치면서 인간주의가 생성되고, 산업 혁명 이후 과학적 합리주의가 보편화되었으며, 프랑스 혁명 이후 반봉건의 시민자유주의가 일반화된 것이 그것이다. 이렇듯 그 본고장인 서구에서는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근대가 한국에는 개항 이후 물밀 듯 들이닥치게 되고, 이에 대한 대응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였다.

20세기 들어서며 근대와 접촉하게 된 한국의 젊은 지식인들에게 근대는 전혀 다른 규칙을 지닌 타자였다. 전혀 다른 규칙을 지닌 타자와의 만남은 대체로 세 가지의 양상을 띤다. 하나는 타자에 대한 절대적 부정. (중략) 다른 하나는 타자에 대한 절대의 긍정. (중략) 또 하나는 타자와 대화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타자와의 대화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공통의 언어게임(공동체)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할 수 없는 장소에 선다”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그는 공동체와 타자 어느 한쪽의 규칙 체계에 갇히지 않는다.

어느 한쪽의 규칙체계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은 정신의 운동에 있어서 대단히

다. 정태현,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화 의 모순과 그 실체」, (역사문제연구소편,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 역사비평사, 1996), 242쪽 참조.

9) 『世界哲學大事典』(교육출판공사, 1987), 127-8쪽 참조.

논자에 따라서는 ①개인주의, ②관용과 견제, ③합리성, ④도덕성, ⑤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 정신으로 들기도 하지만(이완, 『근대성, 아시아적 가치, 세계화』, 문학과지성사, 1999, 122-150쪽), 이에서 ②와 ④는 다른 정신에 내포될 수도 있고, 다른 정신의 산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는 반봉건적 생산 양식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반봉건의식'과 상통한다고 하겠다.

중요하다. 그것은 ‘나’를 지속하면서 타자와의 대화적 관계를 통해 ‘나’를 구성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지속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구성되는 ‘나’는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상호작용 가운데 언제나 살아 역동하며, 여기와 저기라는 공간의 상호작용 가운데 계속해서 신생하는 존재성을 확보한다.¹⁰⁾

위의 지적은 다소 도식적이기는 하지만, 당대 지식인들의 근대 대응 양상을 유형화하여 설정하고 있다. 이 지적에 따르면, 서구식 근대에 대한 절대 긍정의 경우로는 이인직이 그 대표가 될만하며, 절대 부정의 경우는 신채호가 그 표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당대 지식인의 대다수는 그 근대와의 ‘대화적 관계’를 통해 자신을 구성하는 제3의 경우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광수는 일찌감치 그런 ‘대화적 관계’를 포기하고 자신을 무화시켜 버렸고 30년대 들어 상당수의 지식인들도 그 길을 뒤따랐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당시 한국의 ‘근대’는 서구식 근대가 그대로 정착된 게 아니고 일본을 경유한 것이어서 당시 일제의 한반도 식민정책에 의해 변질되어 접맥되었다.¹¹⁾ 그러다보니 한국의 ‘근대’는 일본과 한반도와의 종속적 관계로 해서 왜곡되어 있었다.¹²⁾ 또한 그 ‘근대’의 내면이 당대 일본의 전근대적인 제국주의 이념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기형적 모습을 띠 수밖에 없었다.¹³⁾

10) 정호웅, 「20세기 한국문학과 근대라는 타자」, 문학사와비평연구회 편, 『한국현대문학의 근대성 탐구』(새미, 2000), 142-3쪽.

11) 본고에서는 앞으로 인용부호가 없는 근대는 ‘서구식 근대’를, 인용부호가 있는 ‘근대’는 ‘한국적 근대’ 또는 ‘식민지적 근대’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12) 정태현,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화 모순과 그 실제』(역사문제연구소편,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 역사비평사, 1996), 249-257 쪽 참조.

13) 이완, 『근대성, 아시아적 가치, 세계화』(문학과지성사, 1999) 42쪽 참조.

일제가 한반도를 서구적 근대의 제시현장으로 삼으면서도 경제적 수탈과 착취를 강화하였고, 동시에 이념·정치적으로 제국주의적 팽창을 늦추지 않은 것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 '기형성'은 크게 다음 두 가지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 하나는 식민지의 모든 것을 본국의 의지와 이익에 종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예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을 강화시켜 식민지의 민족 자본을 말살시키는 것, 행정기구와 교육제도를 개편하여 지배·종속 체제를 강화시킨 것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일본 외에 다른 문화권과의 교류를 차단당하여 서구 본래의 근대와의 원활한 접촉이 불가능함으로써, 바람직한 근대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일본적 가치에 오염된 '근대'를 강요당하게 된 것이다.¹⁴⁾

근대화는 본래 서구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것의 원형은 당연히 서구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서구의 원형 대신 일본화된 원형의 적용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서구 근대의 가장 추악한 파생물 즉 제국주의적 팽창주의를 제일 먼저 배웠고 실천에 옮겼는데 그 대상이 한국이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영향력의 독점이 궁극적으로는 일본적 가치의 강요로 귀착된다는 것이다.¹⁵⁾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일본적 가치'는 한 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통적 가치의 범주에 속하는 무사도 정신, 군벌의식, 신사(神社) 숭배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며, 일본이 끝내 군국주의와 전체주의로 치달은 것도 이런 '일본적 가치'의 극단적 이데올로기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본식 '근대'는 서구적 의미에서는 전근대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요컨대, 일제강점기의 '근대'의 기형성은 ①식민지 수탈을 위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된 부분만을 적용, ②행정체제·교육제도를 통한 제국주의적 지배 강화, ③타문화권과의 교류를 차단하여 전근대적인 일본적 가

14) 같은 책, 38-42쪽 참조.

15) 같은 책, 41쪽

치 강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서구적 의미의 근대의 기본 정신에 비추어본다면, 위의 ①과 ②는 ‘반봉건의식’에 저촉되고, ③은 ‘개인주의’나 ‘인간주의’에 저촉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식의 ‘근대’는 합리주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지 않은 점에서는 일면 근대성을 띠었지만, 개인주의나 인간주의나 반봉건의식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전 근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그 기형성이 더욱 뚜렷해진다.

문제는 당대 작가/지식인들이 이 ‘근대’라는 ‘타자’와의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구성해나가면서, 그 ‘근대’의 기형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른바 ‘기형적 근대’에 대한 문학적 대응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 문제에는 다음과 같은 추론이 답이 될 수 있다.

첫째, 이광수의 ‘전통단절론’에서 촉발되어 확산된 이른바 ‘근대추수주의’적 대응이다.¹⁶⁾ 이의 두드러진 특성으로는 반외세의식의 결여를 꼽을 수 있겠는데, 이런 경향은 1920년대 김동인의 예술지상주의 문학을 거쳐, 30년대의 모더니즘 계열로 이어지는 근대 지향적 대응 방식이다. 이들은 ‘근대’에도, 그것의 기형성에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그 기형성이 일제강점기 후기로 갈수록 확산되어갔음을 고려할 때, 이런 무관심은 결과적으로 그 기형성의 확산을 방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김소월과 소위 ‘민족주의 문학’¹⁷⁾을 거쳐, 30년대의 김영랑·조지

16) 이런 용어가 내포하는 뉘앙스는 다양하며, 또한 어떤 작가가 시종일관하여 일정한 대응방식을 펼쳤는가 하는 점에서 이론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이광수의 경우 1910년대 말과 1920년대 초에는 극단적인 전통단절론을 피력하였으나, 1930년대 들어 전통회귀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로 당시의 서구적 근대와와의 관계에서 서구추수적인 모습을 보인 이들이 바람직한 ‘대화적 구성’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17) 이 용어가 담지하는 복잡한 뉘앙스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1920년대 중반 非·反계급주의를 기저로 하는 보수적 우파가 지향하는 ‘민족주의적’ 색채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당시의 보수적 우파를 지칭하는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만, 아직 우리 학계에 마땅한 용어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이 저간의 실정이라서, 기존 논문에서 사용했던 이 용어를 어쩔 수 없이 차용했음을 밝힌다.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일지사, 1976), 107-12쪽

훈 등으로 이어지는 전통지향적인 일군의 작가들의 대응 방식이다. 이들이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에 큰 관심을 가진 점에서 서구식 근대에 추수적으로 뒤따라간 앞의 작가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그들의 관심이 '근대'의 기형성을 문제시 삼는 데까지 나아가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프로문학 계열이 보여준 방식으로 이는 약간 복잡한 양상을 띤다. 1925년 카프의 조직을 전후하여 프로 문사들은 기본적으로 그 기형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들 중 상당수는 탈식민성의 문제를 크게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이 전개되어가면서 이 문제는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이 변화상을 크게 둘로 압축하면, 그 하나는 제1·2차 방향전환을 거치면서 그 세력이 강화되어간 '동경지부파'¹⁸⁾의 창작론 개발을 통한 문학운동이다. 이들은 예의 기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으면서도 그것을 철폐하기 보다는 새로운 이념을 앞세워 신문학운동을 전개해나가는 데 치중하였다. 동경에서 세력을 형성하여 한국에 돌아온 그들로서는 그 일본에 의해 변질된 '근대'의 기형성을 외면할 수 없었으며, 현실적으로는 그런 기형성과 어깨를 맞추지 않고는 그런 문학 운동의 추동력을 획득하기 어려웠다. 프로 이념에 충실한 창작론이 개발되고¹⁹⁾ 작단에 강요되어가면서 애초의 탈식민성이 더욱 약화되어갔고, 그러면서 그 기형성이 더욱 심화된 것은 그 좋

참조.

- 18) 카프의 동경지부에서 그 프로문학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을 편의상 이렇게 일컫기로 한다. 임화, 김남천, 안락, 이복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1929년 카프 동경지부의 기관지로 <無產者>를 내어 일명 '무산자파'로 일컫기도 하는데, 대체로 이들은 1930년 이후 귀국하여 카프의 창작이론을 개발하고 문학운동을 주도하였다. 당시 순수한 국내파인 이기영, 한설야 등이 이론보다는 주로 창작에 전념한 것과도 크게 대조된다.
- 19) 이른바 '대중화론' 이후 전개된 '사회적 사실주의', '유물변증법적 사실주의',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런 창작방법론들은 이론 위주의 논쟁이 성격이 강하여 실제 창작 현장에 적용될 만큼 방법론적 성숙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논저 참조' 김영민, 『한국문학비평논쟁사』(한길사, 1992), 350-394쪽; 최유찬, 「1930년대 한국리얼리즘론 연구」(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은 증좌라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제대로 된 근대적 모습을 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에 소련과 일본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성급하게 이식하고자 하는 당시 일부 프로문사들의 성마른 조급성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넷째, 당시 활동상으로는 상대적으로 미약했지만, 역사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카프 맹원들 중, 사회주의 리얼리즘적 창작방법론을 실천한 작가들의 활동상이다. 이기영, 송영, 강경애, 엄홍섭 등의 리얼리즘적 성취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당시 근대의 기형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창작방법론을 통하여 작품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물론 이런 노력이 의도대로 실천되는 것도 당시 상황로서는 쉽지 않아, 이기영의 『故郷』, 강경애의 『人間問題』 외에는 성공적인 작품을 찾기 어려우나, 끝까지 작가로서의 자기인식을 늦추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3. 기형적 ‘근대’에 대한 채만식의 문학적 대응

채만식의 경우 당대의 기형적 근대에 어떤 문학적 태도를 취하였는가? 이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²¹⁾

20) 최원식은 이를 ‘부자연스러운 발전’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최원식, 「한국문학의 근대성을 다시 생각한다」, 민족문학사연구회 편, 『민족문학과 근대성』(문학과학지성사, 1995), 58쪽. 참조.

21) 일제강점기 채만식 문학에 대한 시기 구분은 대체로 이선영의 분류에 따른다. 그는 채만식 문학을 ‘수련기’(23-33년), ‘전성기’(34-8년), ‘동요기’(39-45)로 나눈 바 있는데, 이런 시기 구분은 그간 채만식 연구자들에게 별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단, 본 고에서는 이선영의 ‘동요기’를 40년을 기점으로 다시 둘로 나누어, 그 뒤의 ‘친일’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선영, 「창조적 주체와 반어의 미학」(문학과사상연구회 편, 『채만식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사, 1999) 19-41 쪽 참조.

3.1. '동반자 작가' 논쟁과 그 직후(1930년-33년)

채만식은 1924년 「세길로」가 《朝鮮文壇》에 추천되어 등단하여 1930년까지 단편 「불효자식」, 「산적」, 「그 뒤로」를 발표하였으나 이렇다 할 문명(文名)을 얻지 못하였다. 소설 「앙탈」, 「산동이」, 「병조와 영복이」(이상 30년) 등과 회곡 「그의 家政風景」, 「米價 大暴落」, 「사라지는 그림자」(이상 31년), 「監督의 안해」(32년) 등을 발표하면서 문단을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고, 1931년 「산동이」로써 야기된 '동반자작가' 논쟁에 끼어들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기에 이른다. 이 논쟁은 김기진의 「산동이」에 대한 평에 대하여 채만식이 반발하는 데서 촉발되었는데, 이에 카프 소장비평가인 이갑기와 함일돈과 신고송이 반론을 펴으로써 비화되어, 이 세 비평가와 채만식 사이에 1934년까지 수 차례 논전을 주고받으면서 전개되었다.

이 논쟁은, 당시 카프 계열 논자들이 채만식 등의 '동반자 작가'를 반체투쟁을 위한 연대협력자나 반외세 운동의 동반자로 인식하기보다는 계급이념에 불철저한 프로문학 예비군 정도로 인식하였던 것²²⁾과 채만식의 창작노선과의 차이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이 사라지는 그림자의 자취에 이미 자본주의가 이식되어 있고 또 자체의 속에서도 초기 자본주의의 싹이 움돋고 있다. 그러나 후자는 그것이 충분히 발전되기 전에 전자에게 짓밟힐 운명에 있는 것이다. (전자 즉 외래자본주의의 얼굴과 표정을 보이지 못한 것은 아무리 특수 정세 밑에서 발표하는 우리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뭉롱하게나마 보이지 못한 것은 확실히 나의 실수로 이 작품에 대한 큰 힘이다. 함군이 차라리 이러한 점에나 착안하였다면 고맙기도 하고 설원도 되었을 것을!) ²³⁾

22) 김영민, 『한국근대문학비평논쟁사』(한길사, 1992), 347쪽.

23) 채만식, 「文藝評家 咸逸敦君의 奇劇」(『批判』 1권 8호, 1931), 『全集』 10권, 33쪽.

단막극 「사라지는 그림자」(31년)에 대한 함일돈의 비평에 대한 반론의 형식으로 쓰여진 글인데, 여기에서 왜곡 이식된 당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을 “외래자본주의의 얼굴과 표정”이라는 말로 지적하고 있어 흥미롭다. 또 채만식은 이 글에서 예의 모순을 ‘중식’의 언행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고 ‘인원’이 그런 모순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인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단막극을 비롯한 그 전후에 발표된 「그의 家政風景」, 「米價大暴落」(이상 31년), 「監督의 안해」(32년) 등은 이런 채만식의 주장을 더욱 타당화시켜준다.

아무튼 채만식의 이 글은, 그가 1930년대 초에 당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주면서, 당시 카프 비평가들과 그 사이에 일정한 노선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동반자작가 논쟁을 거치면서 소위 계급의식은 둔화되지만,²⁴⁾ 논쟁의 와중에 발표된 「貨物自動車」, 「암소를 팔아서」(31년), 「농민의 회계보고」(32), 「팔려간 몸」(33) 등의 농촌 실상을 소재로 한 작품을 통해 농촌 경제의 몰락과 농촌 공동체의 파괴 등을 다루면서 식민지 수탈 문제에 대한 ‘부정의식’²⁵⁾을 늦추지 않으면서, 일부 회곡 작품에서는 당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이 시기에는 ‘근대’의 기형성 중에서 식민지 자본주의의 경제 수탈의 문제가 주로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3.2. 풍자소설 창작 시기(1934년-38년)

1934년 초에 발표된 그의 수필 한 편은 그의 창작경향의 변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2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영민, 『한국문학비평논쟁사』(한길사, 1992)의 319-348쪽과 줄고, 「채만식의 문학평론」(국어문학회편, 『國語文學』 32집) 217-225쪽 참조.

25) 이주형은 채만식 작품의 전반적인 특징을 ‘현실 문제에 대한 부정의식’으로 요약한 바 있다. 본 연구자도 대체로 이 견해에 좌단한다. 이주형, 「蔡萬植의生涯와 作品世界」(『蔡萬植全集』 10권, 창작과비평사, 618-631쪽) 참조.

나는 한 뿌리 부르 인텔리요, 내가 농촌의 중산가(中産家)에서 태어나 이래 반생을 그 환경에 순응하는 생활을 해온 때문이요. '생활'의 힘으로가 아니라 서적으로써 이론적으로 프롤레타리아적 세계관을 파악은 했오. ---대부분 인텔리의 예대로--- 그러나 그러므로 나는 노동자·농촌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지는 했을지언정 그들의 생활과 감정은 가지지 못했오.

또 한 가지 안된 것은 나는 아직까지 계급진영에 들어가 정치적 (중략)의 체험도 가지지 못했오.

이러한 나로서 과거에 노동자·농촌의 생활이나 또는 그들의 정치적 (중략)을 주제로 한 몇 개 작품을 써 내놓았다는 것은 낮이 따가운 돈끼호페 식의 망용이요 선의(?)의 부지이었오.

소부르와 인텔리의 몰락과정 특히 후자의 고민상과 그 (중략)으로 전략의 필연상. 부르조아와 및 그 계급의 정치적 경제적 폭로, 기성문화의 폭로, 이상 몇 가지가 앞으로 당분간 나의 창작활동의 범주이겠오.²⁶⁾

이 인용문은, 1934년을 기해 과거 '동반자' 계열 창작 경향을 반성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채만식의 작가적 고심이 잘 드러나 있다. 노동자·농민의 계급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을 지양하고, 부르조아와 인텔리의 허위성을 폭로하는 방향으로 그의 창작경향이 변화될 것을 예고한다.

「레디메이드 人生」(34년)은 이런 예고를 현실화해준 작품이다. 이어 그는 「明日」(36), 「어머니를 찾아서」(37)를 거쳐 「痴叔」(38), 「少妄」(38), 그리고 「太平天下」(38)을 선보여 일약 '풍자작가'로서 이름을 날린다. 그의 대표작이기도 한 이 작품들을 통하여 그의 작가적 특성인 풍자적 기법이 확립되어간다.

주지하다시피 풍자는 기본적으로 현실 모순에 대한 강렬한 부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채만식의 풍자는 구체적으로 당대 현실의 어떤 점을 부정

26) 채만식, 「創作的 態도와 實際」(『조선일보』, 1934. 1. 11), 『全集』 10권, 526-7쪽.

하고 있는가? 「레디메이드 人生」의 경우, 1930년대 초에 전개된 ‘농촌계몽 운동’의 허구성과 인텔리 실업자 대량 배출 등의 모순된 ‘문화 정책’ 등을 부정하여, 미약하나마 반제국주의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작가의식을 반어적 수법으로 표명하고 있다.²⁷⁾ 이런 작가의식과 창작 수법은 「明日」, 「어머니를 찾아서」, 「痴叔」, 「少妄」, 「太平天下」에서 더욱 심화되거나 세련되어 표현되었다. 예컨대, 「明日」에서 초점화자의 비판적 시각을 통하여 식민지 자본주의 경제 구조의 모순을 부정하고, 「痴叔」에서 내포작가의 이중적 서술을 통하여 반민족적인 역사인식을 비판하고, 「太平天下」에서 서술자의 반어적 어법으로써 친제국주의적 부르주아와 왜곡된 역사인식과 봉건적인 생산양식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구조 등을 고발한다.

이 작품들에 식민지 ‘근대’의 기형성이 그 풍자의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작품들의 풍자의 대상은, 대체로 ‘근대’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모순이 반영되어가고 있었다는 것, 잘못된 정치·사회적 정책들로 해서 반봉건주의가 희석되어가고 있는 것, 그리고 피식민지민의 올바른 역사인식의 주체 확립은커녕 오히려 반민족적인 역사인식이 확산되어가고 있는 것 등으로 압축되는데, 이것들이 모두 ‘근대’의 기형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기형성 중 두 가지, 즉 ①식민지 수탈을 위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된 부분만을 적용, ②행정체제·교육제도를 통한 제국주의적 지배 강화와 직결되어 있어서, 그 이전의 작품들에 비해서 그 인식의 폭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형성 중 나머지 하나인 ‘③전근대적인 일본적 가치의 강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문학적 대응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⁸⁾ 이 점

27) 이런 각도에서 이 작품을 심도있게 조명한 것으로는 이선영, 「창조적 주체와 반어의 미학」(문학파사상연구회 편, 『채만식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사, 1999), 24-8쪽이 있다.

28) 「痴叔」의 서술자 ‘나’가 일본 여자와 결혼하고자 하고 일본식 생활 방식을 따르고자 하는 것 등에서 일부 ‘일본적 가치의 강요’를 발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조선적 가치’를 외면하는 인물의 성격을 반어적으로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외에 여타 풍자소설에서 ‘일본적 가치의 강요’를 찾

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띤다. 우선 그의 기형성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고검열 등 당시의 출판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적 가치의 강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을 다르게 모색할 수 있었을 것이다. 홍명희의 「林巨正」(1928-40)이 '조선적 가치'를 부각시킴으로써 당시의 '일본적 가치의 강요'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3.3. 패배·허무주의 시기(1938-40년)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나 '제국주의적 지배 강화'라는 기형성에 대한 채만식의 인식은 곧 그의 부정의 정신과 만나 풍자소설을 낳았으나, 그 기형성을 해결하려는 어떤 역동적인 힘을 생성해내지는 않는다. 이런 역동성의 결여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나머지 다른 기형성을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일본적 가치'를 대체할 '조선적 가치'가 그에게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역사적 주체를 확립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영국·프랑스·스페인 등 몇몇 제국에 의해 패권적 국제질서가 강화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1937년 일본의 중국 침략으로 제국주의적 팽창이 현시화됨으로써 약소민족으로서의 패배의식이 커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당대 세계질서에 내재된 폭력성을 감지하였으면서도 그 폭력성에 대항할 힘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절망감이 그런 패배주의를 부추겼을 것이다. 그 결과로 '근대'라는 '타자'와의 관계설정에서 '나'의 역동성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된다.

깊은 예술적 감흥이니 인스피레이션 같은 것은 있을 겨를도 없었다. 다만 양과 스피드를 위한 기계적 노역이었었다.

기는 쉽지 않다.

면서기가 공분을 작성할 때면 맨끝에다가 ‘右之通相成度候也’라는 일구를 써 달아놓는다.

나는 마치 면서기공이 이 ‘相成度候也’를 쓰는 솜씨와 조금도 다를 것 없는 건興으로 소설을 썼다. 그런고로 나는 한 사람의 작가라기보다 면서기나 회계사 무원이니 하듯이 ‘문학서기’ 혹은 ‘문학사무원’이라 명명했던 게 더 적절했을 것이다.²⁹⁾

자신의 창작행위를 단순한 기계적 노역으로 비하하는 데에서 어떤 치열한 현실 대결의식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생활인으로 전략한 패배주의를 읽을 수 있다. 이 점은 “어떤 실없는 친구가 그랬는고? 문학이 남아 일대의 쾌사(快事)라고. 제 쓰고 싶은 대로 쓰지를 못해 내중(內腫)이 들어도? 규방의 아녀자의 소일거리나 만들고 앉았어도?(『秋月色』보다 값만 비싼 것) 소학교의 패도감도 못되는 인체생리도를 그림 대신 문자로 그리고 앉았어도? 그 짓을 하느라 제살을 깎아먹고……”³⁰⁾에서도 여실하게 나타난다.

자신의 창작 행위에 대한 이런 패배주의는 곧 작품에 그대로 반영된다. 「少妄」(38)은 풍자소설이면서도 패배주의적 시각을 지니고 있어서, 이 무렵의 작가의 창작경향을 가늠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만하다. 갑자기 신문사에 사표를 낸 다음 삼복에 겨울 양복을 입고 종로거리에서 더위와 대결하는 주인공의 행적을 그의 아내에 의해서 진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단편인데, 이 작품은 날로 가혹해지는 일제의 탄압을 ‘더위’로 표상하고 있지만, 주인공의 행적에서 어떤 현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추동력을 찾을 수는 없다. 주인공의 무언의 시위가 다른 인물들에게 단순히 ‘젊은 망령’으로 치부되어버림으로써 독자들에게도 뚜렷한 역사의식을 환기해주지 못한다.

이런 패배주의적 경향은 「敗北者의 무덤」(39)에서는 주인공의 죽음을

29) 채만식, 「잃어버린 10년」(『조선일보』 1938. 2. 18~26), 『전집』 9권, 509-10쪽.

30) 채만식, 「自作案内」(『靑色紙』, 1939. 5), 『전집』 9권, 517쪽.

통해 심화되고, 『摸索』(39)에서는 현실 타협으로 변화되며, 『上京半折記』(39)에 이르면 조선인의 '종족 근성'에 대한 신랄한 경멸로 이어진다. 『上京半折記』는, 그 주인공이 근 반년만에 서울 나들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무질서한 장면을 목격하자 이를 '종족근성'의 탓으로 치부하고 이를 개탄하는 내용으로 짜여진 작품이다. 즉 이 작품의 초점화자는 역 대표소에서 새치기, 매표원의 불친절과 시골농군의 비굴함, 개찰구의 혼잡상, 대합실 바닥의 침 자욱 등을 보고,

역서 별 수가 없나보다 (중략)

저 한사람만, 그리고 목전에만 좋고 이(利) 되고 하면 선(善)이요, 이 다음이 거나 남이야(아닐 말로) 죽어도 고만, 아무래도 상관없이 하는 그 막된 성습의 단적인 반영이지 다른 것이 아닐 것이다.

천 년 이천 년을 두고서, 전반적으로 반도 백성들의 삶과 피와 뺏속 깊이까지 배어들어 생활화하고 정신화하고 마침내는 본능에까지 순화된(진실로 醇화된) 소위 종족근성이라고 하는 것이다.(중략)

이 한 가지만 미루어보아도 소처럼 그저 부러먹기나 할 감이지 아무쪼록도 달리는 소용이 닿지 않는 백성들일까 보다. (중략)

대체 이 백성들은 그렇다면 무얼 가지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중략) 참으로 호통과 박대, 몽둥이만이 그들에게 약일까보다. 체질에 맞나 보다. (중략)³¹⁾

라고 경멸적인 개탄을 서슴치 않는다. 이런 개탄은 전체적으로 '민족패배주의'를 바탕에 깔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무릇 이 조락한 세대로부터 또 한 가지 하찮으나마 애착과 동경을 영영 잃는다는 것은 작히 슬픔이 아닐 수가 없는 것"³²⁾이라는 서술자의 진술에서도 규지되듯이 이런 '개

31) 채만식, 『上京半折記』, 『전집』 7권, 502-511쪽

32) 같은 작품, 같은 책, 501쪽

탄'에는 '생에 대한 애착과 동경의 상실'이라는 개인적 허무주의가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少妄」에서 엿보인 개인적 패배주의가 허무주의로 변질되고, 「上京半折記」에 이르러 '민족패배주의'로까지 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³⁾

이런 패배주의는, '근대'의 기형성 중 '제국주의적 지배의 강화'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할 만한 어떤 방안도 강구할 수 없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결국 갈수록 강화되어가는 제국주의적 지배의 세계질서를 용인할 수 밖에 없음으로써 이는 허무주의와 '민족패배주의'로 비화되기에 이른다. 즉 이 시기에 오면 채만식은 애초의 자의와는 다르게 '근대'의 기형성 중 '제국주의적 지배의 강화'를 용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의 '근대' 인식은 더욱 불충분해지게 된다.

요컨대, 1938년 이후 약 3년에 걸친 시기는, 풍자성의 둔화 → 현실 타협 → 개인적 패배주의와 허무주의 → '민족패배주의'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채만식의 '근대'에 대한 문학적 대응이 변질되어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3) 조선인의 종족근성에 대한 채만식의 비판에 관한 논구로 주목할 만한 것은 이경훈, 「근대 주체의 좌절과 초극」(문학과사상연구회 편, 『채만식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사, 148-153쪽)이 있다.

이경훈은, 채만식의 이런 '민족 패배주의'가 「善良하고 싶던 날」, 「車中에서」, 「街頭所見」 등에서 더욱 심화되어, 곧 '민족개조론'로 이어지고 나아가 이것이 일제의 '내선일체' 정책에 따르는 동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의 일체말 친일 행적의 원인을 상당히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개인적 패배주의'가 '민족적 패배주의'로 이어지는 부분과, 「善良하고 싶던 날」, 「車中에서」, 「街頭所見」 등에서 보이는 어리석고 가난한 조선인에 대한 뜨거운 연민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몇몇 작품을 면밀하게 읽어보면 채만식의 '민족패배주의'는 '민족개조론'으로 단순화시킬 수 없으며, 거기에는 민족에 대한 내포작가의 뜨거운 연민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4. 친일문학기(40-45)

채만식의 '민족패배주의'가 친일의 한 동인이 되었다는 논구³⁴⁾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지만, 친일의 원인을 여기에서만 찾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결국 '근대'와 관련시켜야 보다 합당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동요의 시기를 거치는 동안 그의 '근대' 기형성에 대한 인식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으로 위축된다. 이런 인식의 폭의 위축은 그만큼 인식의 타당성을 축소시켰지만, 대신에 그 기형성을 극복하는 방법의 단순화를 낳았다. 즉 그 기형성이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으로 좁혀지면 서 그것을 초극하기 위한 방법의 모색이 훨씬 쉬워진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은 서구식 근대가 지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이기도 하였다. 이미 서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보완적인 제도가 개발되었고, 심지어 사회주의라는 대체 이데올로기가 등장하여 러시아 혁명을 통하여 그것의 정치적 실험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진척되어가고 있었지만, 한반도에서는 이 사회주의의 이념마저 상당히 왜곡된 상태로 수입되어 그 자체로 또 다른 기형성을 띠고 있었다. 즉 당시 한반도에서는 자본주의는 일제의 정책에 의거하여 그 모순이 더욱 심화되는 매우 기형적인 모습으로 이미 정착되어 있었고, 사회주의는 한반도에 수입되기는 했지만 이념운동으로 굳어져버려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할 대안으로서 충분한 작용을 하지 못하였다.³⁵⁾

34) 같은 논문, 참조.

35) 당시의 사회주의 운동이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나 '제국주의 지배의 강화'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1925년 전후의 그것은 어느 정도 반제국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번의 방향전환을 거쳐 그 자체의 반제국주의적 색채가 거세되면서 사회주의 운동은 이로써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할 대안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이념운동으로 경색되고 말았다.

한편, 채만식 문학과 사회주의와의 관련성을 문학과 이념의 상관성에 비추어 고찰한 것으로는 하정일의 「채만식문학과 사회주의」(문학과사상연구회 편, 『채만식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사, 1999)가 있다. 여기에서는 채만식이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포기함으로써 친일노선을 걷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은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에 달했던 반면, 사회주의의 이념 운동은 더욱 위축·변질되어가는 시기였다. 이런 시기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 두 이데올로기의 모순이나 기형성을 동시에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쉽게 ‘근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점에서 다음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당시 신체제론의 핵심적인 모토는 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동시적 지양, 즉 ‘근대(서구)의 초극’, ② 동아시아 통일의 통한 ‘근대’를 대치할 새로운 문명(동아 문명)의 건설이었다. (중략) 이런 내용은 동양 변방의 피식민지 민족의 일원으로서 근대(서양) 따라잡기와 그것의 극복이라는 모순적 과제와 싸워왔던 당시 지식인들에게 충분한 호소력과 설득력을 발휘했을 것이다. (중략) 우선 대동아광 영권의 건설을 명분으로 한 신체제론은 친일 지식인들에게 일본과 동일한 위치, 즉 ‘서양의 타자’로서의 자기동일성을 확립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른 심리적 기대치는 근대의 초극은 물론이고 ‘일본의 타자’로서의 피식민적 위치 역시 초극할 수 있으리란 것이었다. 36)

이런 추정은 상당한 신빙성을 지닌다. 특히 채만식과 같은, ‘근대’의 기형성을 인식(불충분하기는 했고, 또 후기로 오면서 그 인식의 폭도 위축되었지만)하면서 일정하게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관심을 지녔던 작가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점은, 그가 친일평론의 하나인 「文學과全體主義」(1941)에서 그가 서구 자본주의의 생산과 분배의 모순을 손수 도해하여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잔재 청산’을 주장하는 데에서 쉽게 노정된다.³⁷⁾

전술한 대로 채만식이 1930년대 초 이미 ‘동반자작가 논쟁’을 거치면서 당시 사회주의의 변질을 비판하고 사회주의운동과 결별한 점을 감안하면, 이런 주장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36) 최현식, 「문학가의 이상과 생활인의 비애」, 『채만식 문학의 재인식』(문학과학사상연구회 편, 소명출판사, 1999), 219 쪽.

37) 채만식, 「文學과全體主義」(『三千里』 1941년 1월호), 『全集』 10권, 226-30쪽.

대일본제국을 맹주로 신흥 만주국과 신흥 중화민국이 같이서 일체가 되어, 경제적으로 동일 블록을 결성하여 상부상조, 대외적으로는 구미의 착취와 침노를 물리치고 사상적으로는 방공(防共)·배적(排赤), 써 공존공영의 우의적 연계 아래 새로운 질서가 동아 천지에 확립이 될 날이 바야흐로 멀지 않아 있는 것이다.³⁸⁾

방금 몰락하고 있는 구라파적인 자본주의와 더불어 탄생하여 더불어 성장하고 더불어 번영을 누려오던 자유주의나 개인주의도 그와 더불어 몰락 또한 같이 할 운명을 짊어진 자이어서 지금에 그 종언을 고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역사의 거대한 행진과 발을 맞추어 우리는 시방 동아(東亞)의 전역에서 세계 신질서의 일환인 신통아 신질서 건설의 대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³⁹⁾

이렇듯, '신체제론'은 채만식에 있어서 기형적인 '근대'(그가 인식하는 한도 내에서의)를 극복하는 논리로서 뿐만 아니라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사회주의를 대신할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등장하게 된다. 이 논리에는, '서양의 타자'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일본의 타자'로서의 피식민지 의식을 동시에 초극하려는 당대 지식인의 심리적 기대치가 작용했다는 최현식의 주장⁴⁰⁾도 설득력 있다. 특히 서양의 계몽 대상이었던 동양을 서구의 가치가 아닌 동양의 그것으로 재인식하려는 동양 지식인의 자기정체성 확립의 차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동양적 가치관으로의 환원'은 당시 신체제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이기도 하였다. 최재서의 '유교적 동질론'⁴¹⁾은 이런 경향을 대표할 만

38) 채만식, 「나의 꽃과 兵丁」(『人文評論』 1940. 7), 『全集』 10권, 427-8쪽.

39) 같은 평론, 231쪽.

40) 각주 36) 참조.

41) 이에 관해서는 정창석의 「대동아 문학회 대회와 한국의 친일문학자」, 『人文學報』 26집 (강릉대 인문과학연구소, 1998), 205-6 쪽을 참조할 수 있음.

한 것인데, 대체로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유교적 미덕과 동양적 휴머니즘을 강조하고 그 가족주의의 확대로서의 국가주의와 전체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이 논리의 골자라 할 수 있다.

이런 ‘신체제론’적 문학 태도는 중편 「血戰」(1941)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평론 「文學과 全體主義」(1941)와 「時代를 背景하는 文學」(1941)에서 직설적으로 주장되었으며, 이의 문학적 형상화에 가장 성공한 작품으로는 『女人戰紀』(1944-5)를 꼽을 수 있다. 이 소설은, 옥동택 임진주의 파란 만장한 일생을 통하여 전통적 부덕(婦德)을 부각하고, 그 부덕이 그녀의 아버지 임 중위와 외아들 철로 이어지는 ‘황국신민의식’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 그의 대표적 친일 작품이다. 여기에서는 유교적 미덕 중 신체제론에 이용될 만한 것으로서 부덕과 충군(忠君)의식이 찬양되고, 개개인의 가족주의 역시 ‘국가’ 전체의 가족주의에 종속된다는 전근대적 가치가 강조된다. 그러다 보니 한국이나 한민족의 정체성은 동양주의에 가려지고 개인의 자유와 인격은 전체주의에 가려 실종되고 만다.

이제 채만식의 이런 친일 태도를 작가의식의 변전의 차원에서 점검해보자. 1940년을 전후하여 그의 패배적 허무주의가 극에 달했을 때 소위 ‘신체제론’이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등장하였다. 이 논리는 그로 하여금 비서구 지식인으로서의 타자 의식, 또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타자 의식, 이 이중의 타자 의식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논리로 작용했고, 나아가 서구식 근대를 초극한다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런 명분은 서구식 근대에 대하여 타자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당시 지식인들을 매료시킬 수 있었다.⁴²⁾ 지식인들의 이런 심리적 기대치에 부응하는 명분의 확보 이것이야말로 그로 하여금 ‘신체제론’이라는 전근대적인 일본적 가치를 용인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런 그의 새로운 전환은 역사적 합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근대’의 기형성 인식의 불충분으로 해서 일찍이 ‘일본적 가치의 오염’을 청산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일제말에 이르러 그 오염된 일

42) 강상중 저, 이경덕·임성모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이산, 1997), 177-8쪽.

본적 가치의 가장 추악한 형태인 '신체제론'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 하나 있다. 서구식 근대의 모순을 아시아적 가치로 극복하겠다는 소위 '근대의 초극' 논리는 '대동아공영권 건설'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음에도 그 내면에는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패권 획득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이른바 '일본식 오리엔탈리즘'을 가장하고 있는 논리였다는 지적⁴³⁾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근대 일본의 국민적 체험으로부터 생긴 대외관의 큰 특징은 '남은 모욕적·양이적인 서양관'의 극복과 더불어 '구태의연한 근린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일본을 구별하려는 자의식'이 강화되어 두 가지 대외관이 양극으로 분해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근대 일본의 오리엔탈리즘은 처음부터 이율배반적인 지향성을 지니고 있었다.(중략)

이렇게 아시아와 서구의 '존재론적·인식론적 구별'에 기초를 둔 사고양식'은 아시아에서 '문명의 우두머리가 된' 일본과 '미개'의 '고루한 인접국가'인 중국이나 한국과의 경계를 고정된 것으로 만들고 결국 스스로 대표할 수 없는 아시아를 대신해서 그들을 대표해야 한다는 도착된 자부심(식민지 지배의 '문화적 사명')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⁴⁴⁾

소위 일본의 '근대의 초극' 논리는 서구와 아시아와의 변별성을 기초로 서구의 근대를 극복한다는 피상적 이론 속에 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노린 '일본식 오리엔탈리즘'을 내면에 깔고 있다는 이런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일제 말에 강요된 '내선일체' 정책은 일본식 오리엔탈리즘의 실천을 위한 가장된 정책이었음이 분명하다. 제국주의자들의 '상상지리'⁴⁵⁾ 안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는 서구식 근대를 초

43) '일본식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논구로는 강상중 저, 이경덕·임성모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이산, 1997)이 주목할 만하다.

44) 같은 책, 87-9쪽.

45) 오리엔탈리스트들이 동양을 신비한 이미지로 남겨놓기 위하여 동양의 지리적

극하려는 일본과는 판이하게 다른 경계 밖의 식민지에 불과했던 것이다.

문제는 당시 한국의 지식인들이 이런 잠재된 논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데 있다. 당시 다수의 친일론자들은 이런 배면의 논리를 간파하지 못하였고, 채만식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전술한 대로 일찍이 당시 ‘근대’가 지닌 ‘일본식 가치의 오염’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그에게 있어 이런 한계는 어쩔 수 없는 장벽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⁶⁾

4. 맺음말

앞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할까 한다.

1) 그는 서구식 근대와 자신과의 관계설정에서 매우 민감한 작가였고, 당시 일본을 통하여 이식된 ‘조선식 근대’가 지니고 있는 기형성을 인식하고자 노력한 작가 중의 하나였으나, 그 기형성을 충분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당시 상당수의 작가들이 ‘근대’ 인식을 외면하거나, 그에 관심을 가졌더라도 그보다 더욱 불충분하게 인식한 점을 감안하면, 그의 역사 인식의 폭은 비교적 넓다고 할 수 있다.

2) 그의 풍자작품을 냉소적 허무주의에 이르는 전 단계로 간주하기보다는, 그의 작가의식인 ‘부정의 정신’의 표현이면서 ‘근대’의 기형성에 대한 그 나름의 문학적 대응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하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제국주의적 지배체제 강화’라는 기형성이 풍자 기법을 통

위치를 실제와 다른 상상적인 차원으로 위치화시키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E. W. Said, 박흥규 역, 『오리엔탈리즘』(교보문고, 1991), 91-128쪽 참조.

46) 그러나 채만식의 경우, 광복 직전 1945년 봄에야 이런 가장 논리를 간파하였던 같다. 그해 봄에 절필과 낙향을 단행한 집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민족의 죄인」(1948) 등의 작품을 통하여 광복 이전의 자신의 잘못과 한계를 시인하였으며, 또 「孟巡査」(1946), 「논이야기」(1946), 「미스터 方」(1946) 등을 통하여 새로운 ‘제국’의 침략 가능성과 거기에 잠재된 후기식민주의를 경계하기도 하였다. 이는 이 논문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고를 달리하여 논하고자 한다.

하여 매우 성공적으로 형상화되었다.

3) 그의 친일 행위는 명백하다. 그 친일의 동인은 '불가피한 생존논리'나 '억압적인 정치적 상황' 등에서 찾을 수도 있으나, '근대'의 문제와 관련해 보면,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른바 '서구식 근대의 초극' 논리를 자신의 패배적인 허무주의를 치유하기 위한 처방으로 받아들인 데서 찾아야 한다. 그것이 그에게 당시 한국에 '왜곡된' 상태로 수용된 서구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신할 만한 것이라는 명분을 제공하였고, 또 그 논리와 쌍벽을 이룬 '신체제론'의 바탕이 된 동양적 미덕이나 휴머니즘 역시 그의 태생적 가치관에 부합될 소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4) 그러나 그의 이런 작가의식의 변화는 그의 지성의 한계를 노출시킨다. 애초에 그는 서구적 근대(인간주의, 합리주의, 개인주의 또는 반봉건의식을 기본 원리로 한)에 대한 신뢰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에 잘못 이식된 기형화된 '근대'와 서구적 근대의 실체로 확실하게 구분하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그로써 '근대'의 기형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로 '근대의 초극' 논리로 가장된 '일본식 오리엔탈리즘'을 간파하지 못한 것이 그것이다. 기실 신체제론은 일본 사상계의 '雜居性의 전통'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형성된, '마술적 힘'을 가진 '비종교적 종교'였다는 지적⁴⁷⁾이 아니더라도 당시 군국주의를 팽창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5) 요컨대, 채만식은 근대와의 '대화적 관계'를 통한 '나의 구성' 작업에 누구 못지 않게 심혈을 기울였으나, 당시 잘못 수용된 미달된 '근대'에 발목이 잡히고 '근대의 초극'과 신체제론이라는 '마술'의 위력 앞에서 지식인의 지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채만식이 이런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것은 일본의 패망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가는 1945년 초였던 같고, 그가 그해 봄에 낙향을 단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그는 끝내 진정한 근대를 체험(구성)하지 못하고 분단이 고착화되어가

47)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일본의 사상』(한길사, 1998), 86-8 쪽 및 125-9 쪽.

는 암울한 역사 속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제대로 된 근대를 열망하는 염원은 그의 작품의 도처에서 아직도 다양한 무너로 빛나고 있다.

참고문헌

- 김동춘, 『근대의 그늘 : 한국의 근대성과 민족주의』, 당대, 2000.
- 김영민, 『한국문학비평논쟁사』, 한길사, 1992.
- 김윤식 편, 『蔡萬植』, 문학과사상사, 1984.
- 김윤식·김현, 『韓國文學史』, 민음사, 1973.
- 김재용·이상경·오성호·하정일,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 김진균·정근식 편저,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 권력』, 문학과과학사, 2000.
- 문학과사상연구회 편, 『채만식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사, 1999.
-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민족문학과 근대성』, 문학과지성사, 1995.
-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 역사비평사, 1996.
- 염무웅, 「근대소설과 민족의식」, 『일제시대의 항일 문학』, 신구문화사, 1974.
- 우현용, 「蔡萬植小說의 談論 特性에 관한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1991.
- 윤영옥, 「채만식 풍자소설의 서사기법 연구」, 전북대 박사논문, 1999.
- 윤영옥, 「채만식 문학 연구 현황과 과제」, 국어문학회, 『國語文學』 32집, 1997.
- 이선영, 「창조적 주체와 반어의 미학」, 문학과사상연구회 편, 『채만식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사, 1999.
- 이 완, 『근대성, 아시아적 가치, 세계화』, 문학과지성사, 1999.
- 이주형, 「蔡萬植의 生涯와 作品世界」, 『蔡萬植全集』 10권, 창작과비평사, 1989.
- 임명진, 「채만식의 문학평론」, 국어문학회, 『國語文學』 32집, 1997.
- 임종국, 『親日文學論』, 평화출판사, 1966.
- 장성수, 「일제말 채만식의 지식인 소설」, 국어문학회, 『國語文學』 32집, 1997.
- 조창환, 『해방전후 채만식 소설 연구』, 태학사, 1997.
- 채만식, 『蔡萬植 全集』 1-10권, 창작과비평사, 1989.
- 한국문학연구회 편, 『다시 읽는 역사문학』, 평민사, 1995.
- 강상중, 이경덕·임환도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7.
-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일본의 사상』, 한길사, 1998.
- E. W. Said,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1.